

# 『하타요가쁘라디빼까』(*Hathayogapradīpikā*) 필사본의 명칭 - 필사본과 카탈록 그리고 표준적 명칭에 대하여 -

박영길(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울너 프로젝트 연구원)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 다룬 내용은 하타요가의 고전인 스와뜨마라마의 『하타요가쁘라디빼까』(*Hathayogapradīpikā*)의 명칭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이 문헌은 『하타요가쁘라디빼까』로 통용되고 있지만 근래 이 문헌의 정확한 명칭이 『하타쁘라디빼까』(*Hathapradīpikā*)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주장은 현존하는 사본의 콜로폰에 의거한 것으로 무시될 수 없는 근거를 지닌다. 하지만 명칭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고 여전히 『하타요가쁘라디빼까』로 통용되고 있다. 아마도 스와뜨마라마의 이 고전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문헌이고 또 명칭이 *Hathapradīpikā*이건 *Hathayogapradīpikā* 이건 동일 문헌이기 때문에 명칭 관련 문제는 부차적인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학적 연구나 번역에 앞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명칭 문제이다.

먼저 이 문헌의 명칭에 대해 콜로폰을 비롯 타 문헌의 인용, 저자의 표현 등을 검토한 후 *Hathayogapradīpikā* 가 표준적인 명칭(Unified Standard Title)에 적합할지를 검토하였다.

콜로폰 등을 분석한 결과 *Hathapradīpikā* 가 원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현존하는 사본의 콜로폰은 서명을 대부분 *Haṭhapradīpikā* 로 기록하고 있다.
2. Haṭharatrnāvalī는 Hp.를 *Haṭhapradīpikā* 라는 명칭으로 인용하였고 Hp.의 주석자인 브라흐마난다도 이 문헌의 명칭을 *Haṭhapradīpikā* 로 암송했다.
3. 16음절수를 고려해서 Hp. 1장 3송은 서명을 *Haṭhapradīpikā* 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1660년부터 하타요가 수행법과 하타요가라는 용어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 문헌은 *Haṭhayogapradīpikā* 라는 명칭으로 필사되기도 하였다. 현재 학계와 일반에서 이 문헌은 *Haṭhayogapradīpikā* 로 통용되는데 그것은 1893년의 출판본이 문헌학자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하나의 표준적인 명칭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비록 *Haṭhapradīpikā* 가 원제의 흔적을 많이 담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Haṭhayogapradīpikā* 가 사실상 표준적인 명칭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Haṭhayogapradīpikā* 로 명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 주제어

하타요가쁘라디빠까, 하타쁘라디빠까, 필사본, 콜로폰



## I. 문제의 소재

15세기 무렵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sup>1)</sup> 『하타요가쁘리디빠까』(*Ha-*

1) p(Lv)는 가장 오래된 필사본으로 Calcutta의 National Library에 소장된 사본 TH 321을 들고 있는데 Hp(Lv)에 따르면 이 사본의 필사 연도는 Samvat 1868년이다. Hp(Lv), 서론 xxiii 참조 하지

hayogapradīpikā)의 필사본 수는 약 318개이다. 비교적 단기간이지만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문헌이 하타요가계에서 압도적인 영향력과 권위를 행사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데와나가리 외에 벵갈리, 그란타, 샤라다, 난디나가리, 네와리, 펠루구, 말라얄람 등으로 다양한 언어와 문자로 필사되었다는 점에서 이 문헌이 누렸던 지지도와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sup>2)</sup> 특히 이 문헌은 브라흐마난다(Brahmānanda)의 Jyotsnā(월광)를 비롯한 탁월한 주석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sup>3)</sup> 여타의 하타요가 문헌과 차별된다.

사본의 콜로폰은 이 문헌의 저자를 스와뜨마라마(Svātmārāma), 스와뜨마라마 요긴드라(Svātmārāma Yogīndra), 아뜨마라마(Ātmārāma), 아뜨마라마 요긴드라(Ātmārāma Yogīndra)로 기록하고 있지만 모두 동일 인물이고 일반적으로 스와뜨마라마(Svātmārāma)로 통용된다.<sup>4)</sup> 하지만 스와뜨마라마의 걸작이

만 Christian Bouy에 따르면 ‘Hp(Lv)가 기록한 Saṃvat 1868’은 Saṃvat 1686의 오기이다. Saṃvat 1686년은 서력 1629년에 해당한다. Bouy(1994), p.83. 각주 350참조.

한편 Bouy는 이 문헌의 성립 시기를 그 이전으로 보는데 그것은 두가지 근거에서다.

① Saṃvat 1581(서력 1524년)에 필사된 Mummaḍideva의 Saṃsārataraṇi가 Haṭhayaḡapradīpikā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Haṭhayaḡapradīpikā의 성립 시기는 서력 1524년 이전이다. Bouy(1994), p.84참조.

② 까이왈야다마에서 출판된 카탈록(Dcym)에 따르면 바라나시 산스끄리트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사본 No.30109의 필사연도는 1553년이다. Bouy는 카탈록(Dcym)의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본을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본다. Vikram Saṃvat 1553은 서력 1496년에 해당한다. Bouy(1994), p.84의 각주 357참조.

2) 필사체에 따르면 사본이 필사된 장소도 캐시미르에서 남부 지역까지 퍼져 있다. 필사된 언어에 대한 목록은 박영길(2009b), pp.48~50을 참조.

3) 발라끄리쉬나(Balakṛṣṇa)의 Yogaprakāśikā 등 다수의 주석이 존재하며 펠루구, 말라얄람, 샤라다, 힌디로 된 주석서도 현존하고 있다. 관련 목록은 박영길(2009b), pp.45~91을 참조.

4) 이 문헌의 1.3계송은 저자를 스와뜨마라마(Svātmārāma)로 명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필사본에서 발견된다.

bhṛāntyā bahumatadhvānte rājayogam ajānatām/

Haṭhapaḍīpikāṃ dhatte svātmārāmaḥ kṛpākaraḥ // Hp. I.3.

자 하타요가의 고전으로 평가되는 이 문헌의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학계와 일반에서 이 문헌은 일반적으로 『하타요가쁘라디삐까』로 통용되어 왔지만 정확한 명칭이 『하타요가쁘라디삐까』(*Haṭhayogapradīpikā*)가 아니라 『하타쁘라디삐까』(*Haṭhapradīpikā*)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sup>5)</sup> 이 주장은 비록 명칭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조사한 결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사본의 콜로폰에 의거한 것으로 무시될 수 없는 근거를 지닌다.

명칭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로나블라의 까이왈야다마 요가 연구소(Kaivalyadhama, S.M.Y.M. Samiti)이다. 까이왈야다마는 당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두 개의 새로운 사본에 의거해서<sup>6)</sup> 전체 5장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교정본을 출판하였고 서명을 *Haṭhapradīpikā* 로 명명하였다. 까이왈야다마의 주장은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데 하나는 당시 조사했던 사본(101개)의 모든 콜로폰이 이 문헌을 *Haṭhapradīpikā* 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저자가 본문에서 이 문헌을 *Haṭhapradīpikā* 로 부르고 있다는 점 등에서이다.<sup>7)</sup> 한편, 로나블라의 로나블라 요가연구소(Lonavla Yoga Institute)는 ‘*Haṭhapradīpikā* 가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었다는 기록에 의거해서’ 25년간 10장으로 구성된 사본을 추적했는데,<sup>8)</sup> 마침내 조드뿌르(Jodhpur)의 Mahārāja Mānsingh Lirarary에 소장된 두 개의 필사본 No.1915(2227), No.1915(2228)를 발견했고<sup>9)</sup> 새로운 교정본의 서명을 사본의 콜로폰에 의거

5) 명칭에 대한 논란은 박영길(2009b), pp.45~46에서 필사본의 현황을 다루면서 간략히 언급했지만 본고에서의 논의 전개를 위해 다시 언급한다.

6) ① No.621 (1886~92) of the B.O.R.I. Library(Poona),

② Sarvajanic Vācanālay(Nāsik)에 소장된 필사본

7) 관련 내용은 Hp(Kd) 서론 p.19 및 박영길(2009a), p.50을 참조.

8) Hp(Ly), 서론 p.14 참조.

9) 사본번호 1914는 10장으로 구성된 *Haṭhapradīpikā*이고 1915는 10장으로 구성된 Hp.에 대한 Bālakṛṣṇa의 주석 *Yogaparakāśikā*이다.

해서 *Hāṭhpradīpikā* 로 명명하였다.<sup>10)</sup>

하지만 명칭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이 문헌은 *Haṭhayogapradīpikā* 로 통용되고 있다.<sup>11)</sup> 아마도 스와뜨마라마의 이 고전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문헌이고 또 명칭이 *Hāṭhpradīpikā* 이건 *Haṭhayogapradīpikā* 이건 동일 문헌이기 때문에 명칭 관련 문제는 부차적인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학적 연구나 번역에 앞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명칭 문제이다.

먼저 이 문헌의 명칭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Hāṭhayogapradīpikā* 가 표준적인 명칭(Unified Standard Title)에 적합할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명칭을 결정하는 일차적 단서는 저자의 직접적인 표현이고 이차적으로는 사본의 콜로폰 그리고 사본의 표지와 카드 카탈록 및 출판된 카탈록 그리고 타 문헌에서 인용된 명칭 등이다.

명칭이 논란될 뿐 *Hāṭhpradīpikā* 와 *Hāṭhayogapradīpikā* 는 동일한 텍스트이다. 서명 전체를 언급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Hp.로 약칭한다.

## II. 사본

### 1. 콜로폰과 카탈록

10) 출판본엔 “with Yogaparakāśikā Commentary by Bālakṛṣṇa” 라는 부제가 달려 있지만 *Yogaparakāśikā*의 원문과 번역은 수록되지 않았다.

11) 비록 명칭 문제를 논의했던 것은 아니지만 몇몇 학자는 명칭에 대한 논란을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Banerji는 Hp13에 의거해서 이 문헌의 명칭을 *Hāṭhpradīpikā*라고 말하고 있다(Banerji(1995), p.213). 물론 Banerji는 이 문헌의 제목을 *Hāṭhayogapradīpikā*로 표기하고 있다. 한편 Bouy는 *Hāṭhayogapradīpikā*와 *Hāṭhpradīpikā*를 혼용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Haṭhpradīpikā*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Bouy(1995), p.85, p.119를 참조.

2008년과 2009년, 필자는 울너 콜렉션(Woolner collection)으로 명명된 ‘파키스탄 라호르의 편집대학교에 소장된 필사본’들을 분석하던 중 2개의 Hp. 사본을 접할 수 있었고 특이 사항으로 사본의 콜로폰에 기록된 명칭이 *Hat-hapradīpikā* 라는 것을 기록한 바 있다.<sup>12)</sup> 그리고 2009년 초 편집대학교 사본실에서 나머지 사본 3개를 분석한 결과 5개의 사본<sup>13)</sup> 중 마지막 폴리오를 소실한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Haṭhapradīpikā* 로 기록된 것을 확인한 후 ‘*Haṭhapradīpikā* 가 정확한 명칭이라는 까이알야다마의 입장’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sup>14)</sup>

콜로폰이 제목을 *Hathapradīpikā* 로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된 카탈록이 이 사본들을 *Hathayogapradīpikā* 로 분류했다는 것은 흥미롭다.<sup>15)</sup> 왜 이 문헌이 *Hathayogapradīpikā* 로 불렸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과정에서 *Hathayogapradīpikā* 로 알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나의 단적인 예이지만 콜로폰과 카드 카탈록 그리고 출판 카탈록의 명칭이 다르게 기록된 사례에 대해서 403번 사본을 들 수 있다.

No. 403 (Catalogue No.445, Vol. II, p.32)

Size 14×10cm, 61folios, 7Lines, 17~18Akṣaras

Colophon: (F. 61v, 5 ~ 62r, 2)

iti śrīśahajānamḍasamtānaciṃtāmaṇi svātmārāṃaviracitāyaṃ

haṭhapradīpikāyāṃ samādhilakṣaṇaṃ nāma caturtha upadeśaḥ//4//

12) 박영길(2009a), p.49의 각주1번 참조.

13) 1941년에 발행된 카탈록에 따르면 Hp.사본은 4개이다. 하지만 실제 사본의 분류과정에서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14) 박영길(2009a), p.49의 각주1번 참조.

15) Csm(1941), p.32.

콜로폰에 따르면 이 사본의 명칭은 *Haṭhapradīpikā*이다. 이 사본의 표지에 편잡대 도서관에서 작성한 라벨이 있는데 사본 제목은 데와나가리로 “haṭha(yoga)pradīpikā”로 기재되어 있다. 단어 *yoga*가 괄호 안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사본이 당시에 *Haṭhayogapradīpikā*로도 통용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첫 번째 폴리오 앞면에 좀 더 오래된 라벨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본의 제목이 로마자로 “Hath-Yog-Pradipika”로 기록되어 있다.<sup>16)</sup> 이 라벨은 이 사본을 획득한 시기 등이 기록되어 있으므로<sup>17)</sup> 아마도 사본을 입수할 당시(약 1902~1925년 사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sup>18)</sup>

통상, 사본의 표지에 기재된 제목은 콜로폰에 의거해서 기록되고 그 이후에 작성되는 카드 카탈록은 표지 제목에 의거하고, 바로 이 카드 카탈록과 콜로폰에 의거해서 카탈록이 출판된다. 출판카탈록과 사본의 표지, 콜로폰이 각각 다르게 기록된 위 사례는 콜로폰의 제목이 분류자(사서나 사본실 큐레이터 또는 수집가)에 의해 당시 통용되던 명칭으로 변경된 하나의 예이다. 이례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본을 수집하고 분류했던 1920년대 초에 이미 *Haṭhayogapradīpikā*라는 명칭이 그 당시에 널리 통용되었고 또 카탈록이 출판된 1932년엔 *Haṭhayogapradīpikā*가 하나의 표준적인 명칭(일종의 Unified Standard Title)이었다는 것이다.

16) 올너 컬렉션의 경우 사본의 표지는 대부분 나무판으로 되어 있고 전면에 라벨이 있어 제목과 폴리오 수 등의 간략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드물게 뒷표지의 나무판(혹은 마지막 폴리오)에도 라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라벨이 조금 더 오래된 것으로 구입처, 장소 등이 기록되어 있다.

17) “Manuscript No.549, Purchased on 8-12-21, Title: Haṭha Yog Pradipika.” (Old Label on F1r.)

18) 반면 사본 표지에 있는 라벨은 실제 사본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본의 고유번호(Accession number 혹은 Manuscript number)를 담고 있으므로 그 이후에 사서가 새롭게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필사본의 콜로폰이 원제의 흔적을 많이 담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일단 사본의 콜로폰에 기록된 명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명칭	사본의 수
Haṭhavidyā	1
Haṭhadīpikā	5
Haṭhapradī	1
Haṭṭapradīpikā	1
Haṭhapradīpa	3
Haṭhapradīpikā	220
Haṭhayoga	4
Haṭhayogadīpikā	1
Haṭhayogapradīpikā	81
Svātmayogapradīpaprabodhini	1

*Haṭhapradīpikā* 로 기록된 것은 대부분 콜로폰에 의거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Haṭhayogapradīpikā* 라는 명칭 중 일부는 콜로폰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편잡대학의 경우처럼 당시에 통용되던 표준적인 명칭으로 기록된 것이다.

카이알야담마 연구소는 조사하거나 의뢰했던 101개의 사본의 콜로폰이 *Haṭhapradīpikā* 로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위의 도표에 따르면 *Haṭhayogapradīpikā* 로 된 사본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분명하다.

일단 콜로폰에 의거해서 판단한다면 *Haṭhapradīpikā* 가 원제의 흔적을 많이 담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 *Haṭhapradīpikā* 라는 명칭이 필사 당시에 더 통용되었던 명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필사연도

Hp.의 명칭이 바뀌게 된 시기를 알게 해주는 단서가 있다면 그것은 필사연도와 명칭을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본이 필사연도를 기록한 것은 아니므로 이 작업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다만 하나의 사례로 ‘Saṃvat와 Vikram saṃvat(v.s.로 약)로 기록된 사본 중 비교적 오래된 것을 순서대로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sup>19)</sup>	사본번호	제목	필사연도
62.	2230	Haṭhapradīpikā	v.s. 1683
23.	Ⅲ -G-25	Haṭhapradīpikā	saṃvat 1689
22.	766	Haṭhadīpikā	saṃvat 1690
312.	1368	Haṭhapradīpikā	v.s. 1700
71.	3013	Haṭhapradīpikā	saṃvat 1706
292(C-).	L.No.6-4(399/6176)	Haṭhayogapradīpikā	saṃvat 1717
98.	23709	Haṭhayogapradīpikā	v.s. 1724.
287.	L.No.6-4(399/6171)	Haṭhayogapradīpikā	saṃvat 1744
205.	C-1158	Haṭhapradīpikā	saṃvat 1747
3.	6423	Haṭhapradīpikā	saṃvat 1750
150.	399(1895-1902)	Haṭhapradīpikā	saṃvat 1751
2.	5207	Haṭhapradīpikā	saṃvat 1756
304.	3101	Haṭhapradīpikā	saṃvat 1759

19) 왼쪽의 번호는 박영길(2009b)의 논문 내에서의 일련번호이다. 각 사본의 소장처나 간략한 정보는 이 번호에 의거해서 추적할 수 있다.

1.	2778	Haṭhapradīpikā	saṃvat 1764
82.	6756	Haṭhayogapradīpikā	saṃvat 1765
35.	2082	Haṭhayogapradīpikā	saṃvat 1775
203(C-a).	B-109	Haṭhapradīpikā	saṃvat 1784
12(C-j).	1812	Haṭhapradīpikā	saṃvat 1784

위의 경우에 한정한다면, 초기에는 *Haṭhapradīpikā* 로 불렸지만 1660 (saṃvat1717)년 이후부터 *Haṭhayogapradīpikā* 로 불리고 또 두 명칭이 혼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필사연대를 기록하지 않은 사본이 더 많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1660년 이후부터 *Haṭhapradīpikā* 와 *Haṭhayogapradīpikā* 가 혼용되었지만 전자가 그 이전이나 이후의 필사자들에게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의 학자들<sup>20)</sup>에게도 익숙했던 명칭이었다는 것이다.

### Ⅲ. 후대 문헌의 언급

#### 1. *Haṭharatnāvalī*

Hp.계열의 하타요가 문헌 중 쉬리니와사요기(Śrīnivāsayogi)의 『하타라뜨나왈리』(*Haṭharatnāvalī*, 이하 Hr.로 약)는 놀라운 정도로 Hp.와 일치한다.<sup>21)</sup> 이

20) 1899년에 출판된 Monier-williams의 Sanskrit-English Dictionary, p.1287(a)은 *Haṭhapradīpikā*를 요가문헌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21) Hr(Kd)의 서론 p.20에 따르면 *Haṭharatnāvalī*가 인용한 Hp. 계승 수는 약 127개로 전체의 33%에 해당한다.

문헌은 Hp를 공식적으로 또 암암리에 인용하고 있으므로 Hp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sup>22)</sup> 흥미로운 것은 Hr이 Hp. 원문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이다. Hr은 직접 인용하면서 서명을 밝히고 있는데,<sup>23)</sup> 여기서 Hr이 성립되었을 당시 Hp가 어떤 명칭으로 알려졌는지를 알 수 있다.

(1. 27)

atha haṭhapradīpikāyām bastridhautistatiah netistrāṭakam ... pracakṣate.

(1. 50)

atha haṭhapradīpikākāramate nābhidaghnalale ... bastikarma tat.

첫 번째는 Hp. 2.22를 인용한 것이고 두 번째는 2.26을 인용한 것이다. Hr.1.27의 “haṭhapradīpikāyām”은 여섯 개의 필사본에서 발견되고<sup>24)</sup> 1.50의 “haṭhapradīpikā...”는 모든 필사본에서 발견되는 내용<sup>25)</sup>이다.

22) 이 문헌의 성립 시기는 1625년에서 1695년 사이로 추정된다. Hr(2002), p.xiv를 참조.

23) 한편 1.31송에서는 Svātmārāma라는 이름도 발견된다.

24) 모든 Haṭharatnāvalī의 사본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Hr(Kd), p.13에 따르면 위 내용은 다음의 사본에서 발견된다. ① Ms.no. 2243 Haṭharatnāvalī(Jodhpur: Maharaja Mansimha Pustak Prakash Shodha) ② Ms.no. Sa413 Haṭharatnāvalī(Kathmandu: Rastriya Abhilekhar) ③ Ms.no. 4-39 Haṭharatnāvalī(Kathmandu: National Archives) ④ Ms.no. 5-6846 Haṭharatnāvalī(Kathmandu: National Archives) ⑤ Ms.no. 6-1744 Haṭharatnāvalī ⑥ Haṭharatnāvalī(microfilmed by the NGMPP, Reel no. f-30/12.

반면 “atha Haṭhapradīpikāyām”이 아니라 “svātmārāma mate tu - adhkaprāṭah”로 되어 있는 사본도 존재한다. ① Ms. no. 6714 Haṭharatnāvalī(Thanjavur: MSSM Library) ② Ms.no. 6393(b) Haṭharatnāvalī(Thanjavur: Sarasvati Mahl Library) ③ Ms.no. Re-332-73, Haṭharatnāvalī(Prof. M.Venkata Reddy)

25) Hr(Kd), p.23에 따르면 이 내용은 다음의 사본에서 발견된다.

① Ms.no. Sa413 Haṭharatnāvalī(Kathmandu: Rastriya Abhilekhar) ② Ms.no. 4-39 Haṭharatnāvalī(Kathmandu: National Archives) ③ Ms.no. 6-1744 Haṭharatnāvalī ④ Haṭharatnāvalī(microfilmed by the NGMPP, Reel no. f-30/12. ⑤ Ms. no. 6714 Haṭharatnāvalī

Hr이 인용문헌을 haṭhapradīpikā로 명기했다는 것은 Śrīnivāsayogī(또는 최초의 Hr 필사자)와 그 이후 필사자들이 *Haṭhapradīpikā*를 문헌 명칭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6)</sup>

## 2. *Jyotsnā*

Hp에 대한 주석서 중 가장 명망높은 것은 브라흐마난다(Brahmānanda)의 *Jyotsnā*(월광)이다.<sup>27)</sup> 후술하겠지만 Hp는 haṭhayoga라는 표현을 꺼려하고 대부분 haṭha로 표현한 반면 *Jyotsnā*는 계송의 haṭha를 모두 haṭhayoga로 풀이하고 또 haṭhayoga라는 복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sup>28)</sup> haṭha의 의미를 haṭhayoga로 풀이하는 *Jyotsnā*의 입장을 강조한다면 *Haṭhapradīpikā*와 *Haṭ-*

---

haratnāvalī(Thanjavur: MSSM Library) ⑥ Ms.no. 6393(b) *Haṭharatnāvalī*(Thanjavur: Sarasvati Mahl Library) ⑦ Ms.no. Re-332-73, *Haṭharatnāvalī*(Prof. M. Venkata Reddy)

한편, “*Haṭhapradīpikā mate tu*”로 되어 있는 사본은 ① Ms.no. 2243 *haratnāvalī*(Jodhpur: Maharaja Mansimha Pustak Prakash Shodha) ② Ms.no. 5-6846 *haratnāvalī*(Kathmandu: National Archives)이다.

Hr. 1. 50의 경우 모두 사본이 ‘*Haṭhapradīpikā*’라는 명칭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그리고 이 문헌의 명칭이 *Haṭhayogaratnāvalī*가 아니라 *Haṭharatnāvalī*라는 것에 비추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비록 현대인에겐 생소하지만 *Haṭhapradīpikā*가 원래일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27) *Jyotsnā*의 필사본은 최소 27개 이상이 현존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Wai(Sātara)의 Prajñā Pāthasālā Library에 소장된 필사본 L.No.6-4(399/ 6176)이다. 콜로폰에 따르면 이 사본은 Samvat 1717(서력 1660년에 해당)에 필사되었으므로 브라흐마난다의 생존 시기는 그 이전이 된다. 이 사본은 모두 201개의 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이에 테와나가리로 필사되었다. 크기는 20.8×16.3cm이며, 폴리오 당 13줄이고 각 라인은 29아크샤라로 되어 있다. 박영길(2009b), p.89, pp.61~2를 참조.

28) 예를 들면, Hp. 16: *Haṭhayogavidyā Haṭhayogaśāstram iti ... mantrayogahaṭhayogādīnām...*<sup>1)</sup>

(‘하타요가의 지혜’라는 계송의 말은 하타요가의 논서라는 의미인데). 만트라요가, 하타요가 등)

Hp. 13: *iti haṭhayogasya lakṣaṇam siddham* (라고 하타요가의 특징이 확립되었다)

*hayogapradīpikā* 사이의 도식적인 구별은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수 있는 것은 ‘Hp. I .3에 언급된 서명 *Hathapradīpikā*’에 대한 브라흐마난다의 주석이다.

haṭhasya haṭhayogasya pradīpikēva prakāśakatvāt haṭhapradīpikā tām/  
atha vā haṭha eva pradīpikā rājayogaparakāśakatvāt, tām dhatte ...

(*Jyotsnā*. I 3. p. 4. ll. 2-4)<sup>29)</sup>

브라흐마난다는 *Hathapradīpikā* 의 의미를 격한정 복합어 제6격 그리고 동격한정 복합어로 해석한다. 이 중에서 첫 번째 해석에 따르면 haṭha는 haṭhayoga를 의미하고 *Hathapradīpikā* 는 haṭhayogasya pradīpikā(하타요가의 등불)로 분석된다. 여기서 haṭha와 haṭhayoga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은 재차 분명해진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문장이 *Hathapradīpikā* 라는 제목의 의미를 풀이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브라흐마난다가 *Hathapradīpikā* 라는 서명을 두 가지의 미로 풀이했다는 것 자체가 암시하는 것은 ‘브라흐마난다가 이 문헌을 *Haṭhapradīpikā* 로 암송했다’는 것이다.

## IV. 저자의 표현

### 1. 단어 Haṭha의 의미와 용례

29) ‘하타의’ 즉 하타요가는 마치 등불처럼(pradīpikēva) 빛을 발하기 때문에 ‘하타쁘라디뻬까’인데, 그것을 [스와뜨마라마가 들었다] 혹은 하타가 바로 ‘등불’ 즉, 라자요가의 불을 밝히는 것이므로 [‘하타쁘라디뻬까’인데 그것을 [스와뜨마라마가 들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콜로폰에 *Haṭhapradīpikā* 로 기록되고 있고 또 이 문헌을 인용하는 후대 문헌도 명칭을 *Haṭhapradīpikā* 로 언급했으며 더욱이 *Jyotsnā* 도 *Haṭhapradīpikā* 라는 명칭의 의미를 풀이했다는 점에서 *Haṭhapradīpikā* 가 정확한 명칭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Hp.에서 hathayoga라는 복합어 자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와뜨마라마가 hathayoga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꺼려했던 것은 심지어 ‘콜로폰에 서명이 *Haṭhayogapradīpikā*로 기록된’ Hp(Ad)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Hp(Ad) 전체에서 hathayoga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2번, hathayogin이라는 표현이 1번 나타나고 나머지는 모두 haṭha로 표현되어 있다.

- |      |                           |                      |
|------|---------------------------|----------------------|
| 1.1  | hathayogavidyā vibhrājate | :하타의 지혜는 ... 빛난다     |
| 1.2  | haṭhavidyopadiśyate       | :하타의 지혜를 가르친다        |
| 1.3  | haṭhapradīpikām dhatte    | : ‘하타의 등불’을 들었다      |
| 1.4  | haṭhavidyām ... vijānate  | :하타의 지혜를 ... 안다      |
| 1.9  | haṭhayogaprabhāvataḥ      | :하타요가의 수행으로부터        |
| 1.10 | samāśrayamaṭho... haṭhaḥ  | :하타는 ... 사원이며        |
|      | ādhārakamaṭhaḥ... haṭhaḥ  | :하타는 ... 거북이 같다.     |
| 1.11 | haṭhavidyā ...gopyā       | :하타의 지혜는... 보호되어야 한다 |
| 1.12 | sthātavyaṃ haṭhayoginā    | :하타요기는 머물러야 한다.      |
| 1.17 | haṭhasya prathamāṅgatvād  | :하타의 첫 단계이므로         |
| 2.34 | haṭhakriyā                | :하타행법은               |
| 2.38 | haṭhajñāiḥ                | :하타를 아는 자들에 의해서      |
| 2.75 | haṭhasiddhīś ca jāyate    | :하타의 완성이 일어난다        |

2.76	haṭhaṃ vinā	: 하타를 결여한다면
	haṭhaḥ na sidhyati	: 하타는 성취되지 않는다
2.78	haṭhasiddhilakṣaṇam	: 하타를 완성한 자의 특징은
3.76	haṭhatanrāṇām	: 모든 하타 수련법의
4.79	kevalaṃ haṭhakarmaṇaḥ	: 단지 하타를 수련하는 자들
4.103	sarve haṭhalayopāyā	: 모든 하타, 라야의 수단들은
4.104	haṭhaḥ kṣetram	: 하타는 밭이고

위에서 열거한 haṭhajñāniḥ, haṭ hasiddhis 등 대부분의 경우 ‘yoga’를 넣어 haṭhayogajñāniḥ, haṭhayogasiddhis로 표현되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오히려 haṭhayoga로 표현되어야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되는 곳에서조차 haṭha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저자가 haṭha라는 단어를 선호한 반면 복합어 hathayoga를 외면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이 점은 rājayoga라는 복합어와 비교할 때 명확하게 대조된다. 저자가 하타요가를 대부분 haṭha로 표현하고 라자요가의 경우 철저히 rājayoga로 표현했다는 것은 하타요가와 라자요가가 동시에 언급되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haṭhaṃ vinā rājayogo rājayogaṃ vinā haṭhaḥ/*<sup>30)</sup>

*rājayogaṃ ajānantaḥ kevalaṃ haṭhakarmaṇaḥ/*<sup>31)</sup>

30) “하타요개 없이는 라자요가가 성취되지 않으며, 라자요가 없이는 하타요가가 성취되지 않는다.” II.76(a)

31) “라자요가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하타요가만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노력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수행자들이라 한다.” IV.79.

*sarve haṭhalayopāyā rājayogasya siddhaye/  
rājayogasamārūḍhaḥ puruṣaḥ kālavañcakaḥ//* <sup>32)</sup>

*rājayogaṃ vinā pṛthvī rājayogaṃ vinā nīśā/  
rājayogaṃ vinā mudrā vicitrāpi na śobhate//* <sup>33)</sup>

Hp에서 rājayoga라는 복합어는 19번 발견되지만 단 한 번도 rāja로 표현되지 않았으며<sup>34)</sup> 반대로 haṭhayoga는 대부분 ‘yoga’가 생략되어 haṭha로 표현되었다. 저자가 haṭha / rājayoga라는 표현을 고집하면서도 rāja / haṭhayoga라는 표현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마치 Haṭharatnāvalī라는 서명처럼 haṭhapradīpikā가 더 합당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저자가 rājayoga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락사나타의 『싯드히싯드한따빠드하띠』(Siddhisiddhāntapaddhati)에서 이미 복합어 haṭhayoga가 발견되므로<sup>35)</sup> 저자가 haṭhayoga라는 표현을 몰랐을 가능성

32) “하타요가와 라야요가의 수단은 모두 라자요가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라자요가에 숙달한 사람은 죽음을 극복한다.” IV.103.

33) “라자요가가 없으면 대지(체위)도, 밤(호흡)도, 다양한 무드라조차도 빛을 발할 수 없다.” III.126

34) rājayoga와 무관한 rājadantamūle(앞니의 뿌리에, I.46). rājapathāyat(王道가 될 것이다, III.3) 등은 용례에서 제외하였다.

35) 스와뜨마라마 자신이 고락사나타를 스승으로 열거했다는 점에서 스와뜨마라마는 고락사나타의 저작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현존하지는 않지만 고락사나타의 『하타요가(Haṭhayoga)』라는 문헌이 있었다는 점에서 Hp가 성립되기 전에도 haṭhayoga라는 복합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라흐마난다는 고락사나타의 문헌을 인용하면서 haṭha의 의미를 설명한다.

tathā cokaṭṭaṃ gorakṣaṇāthena siddhisiddhāntapaddhatau

“hakāraḥ kīrtitaḥ sūryaḥ ṭhakāraś candra ucyaate/  
sūryācandramasor yogādd haṭhayogo nigadyate” iti

(그와 같이 고락사나타는 싯드히싯드한따빠드하띠(Siddhisiddhāntapaddhati)에서 “하(ha) 음절은 태양이고 타(tha) 음절은 달을 지칭한다고 말해졌다. 태양과 달의 결합 때문에 하타요가



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와뜨마라가가 haṭhayoga라는 표현을 꺼려했다는 것은 haṭha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당시엔 haṭhayoga와 의미상 교환 가능했거나 또는 그 의미를 포함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예를 들면 haṭhavidyā(하타의 지혜), haṭhasiddhi(하타의 성취자)라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단어 haṭha 자체가 사실상 ‘하타요가’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번역할 경우 “하타[요가의 지혜],” “하타[요가의 성취자]와 같은 형식으로 ‘요가’라는 단어를 보충해서 넣는 식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다.<sup>36)</sup> 마치 현대인에게 haṭhayoga가 익숙하듯이 당시엔 haṭha가 더 익숙한 용어이거나 혹은 haṭha가 haṭhayoga의 의미를 포함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haṭha가 haṭhayoga의 의미를 포함하거나 또는 두 용어가 교환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도 의문이 남는데, 그것은 왜 두 단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haṭha를 선호하고 haṭhayoga를 기피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다음에 논의할 음절수이다.

## 2 음절

상황한 열거나 설명이 필요한 곳 혹은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단 몇 군데를<sup>37)</sup> 제외하고 Hp.의 계송은 16음절 2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유에서 haṭha가 아니라 haṭhayoga로 될 경우 2음절이 늘어나게 되므

로 명명된다”라고 말했다)

36) 이와 관련된 좋은 예는 II 장 76의 계송 전반부에서 나타난다.

haṭham vinā rājayogo rājayogaṃ vinā haṭhaḥ(하타 없이는 라자요가가, 라자요가 없이는 하타가[성취되지 않는다])

위 문장에서 haṭha는 haṭhayoga 외의 다른 것이 아니며, ‘하타요가’ 외에 다른 의미를 담을 수도 없다. 문맥상 haṭha만으로도 ‘하타요가’라는 의미는 전달된다.

37) ex: II.38.

로 저자가 음절수를 고려해서 yoga를 생략해버렸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저자가 yoga를 일부러 생략했다면 그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haṭha만으로도 ‘haṭhayoga’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1.1의 경우처럼 hathayogavidyā 라는 표현으로도 음절수를 맞출 수 있는 경우에만 haṭhayoga로 표현되고 음절을 맞추기 힘들 경우에 ‘yoga’를 생략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sup>38)</sup> 물론 ‘yoga라는 두 아크샤라가 있긴 없긴’ 의미상의 변화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것은 문헌의 명칭에 대한 저자의 언급이다.

### 3. 저자의 언급

사본의 콜로폰, 사본 표지, 카탈록 등의 정보보다 더 일차적인 것은 저자가 본문에서 이 문헌의 명칭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명이 언급된 Hp. 1장 3송을 주목할 수 있다.

bhrāntīyā bahumatadhvānte rājayogam ajānatām/  
 haṭhapradīpikāṃ dhatte svātmārāmaḥ kṛpākaraḥ//<sup>39)</sup>

위 계송은 *Hathapradīpikā* 라는 서명이 언급된 유일한 계송이다.<sup>40)</sup> 한 가

38) 반면 주석에서는 haṭha라는 단어 대신 대부분 haṭhayoga로 표현되었는데 그것은 주석이 운율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39) 다양한 견해의 어둠 속에서 혼동으로 인해 라자요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비롭기 한 없는 스와뜨마라마는 하타의 등불을 밝힌다. I. 3

40) Hp(kd) 역시 이 계송에서 언급된 Haṭhapradīpikā를 이 문헌의 명칭에 대한 하나의 단서로 파악했다. Hp(Kd) 서문 p.19.

지 염두에 둘 것은 저자 자신이 스스로를 ‘자비로운 스와뜨마라마’라고 표현했을 리 만무하므로 최소한 I.1.3은 스와뜨마라마의 진술이 아니라 ‘그의 직제자’ 또는 ‘최초의 필사자’에 의해 덧붙여진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sup>41)</sup> 하지만 이 계송은 다른 모든 출판본과 사본에서도 그대로 발견되는 계송으로 말하자면 ‘최초 필사본의 원형이 온전하게 유지된 계송’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송만으로 이 문헌의 명칭을 *Hathapradīpikā*로 한정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Hathapradīpikā*라는 표현이 스와뜨마라마의 육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스와뜨마라마의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했던 제자’나 ‘최초의 필사자’가 음절수를 고려해서 표현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최초의 필사자’가 *Hathayogapradīpikā*로 표현하고자 했다면 그는 음절수를 고려해서 *krpākaraḥ*를 빼고 아마도 ‘hi’ 또는 ‘ca’를 추가했을 것이다.<sup>42)</sup> 하지만 문맥상 이 계송은 Hp.를 세상에 내놓는 동기인 ‘스승 스와뜨마라마의 자비로움’이 강조되므로 ‘최초의 필사자’는 네 음절의 *krpākaraḥ*(자비로운) 대신 두 음절의 *yoga*를 생략함으로써 음절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단어 *yoga*를 생략해도 좋겠다고 최초 필사자가 판단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haṭha*만으로도 *hathayoga*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된다는 것을 고려했을 것이다.

*Hathapradīpikā*가 저자의 육성이 아니고 또 이 표현이 운율을 고려한 직제자 혹은 최초 필사자의 표현이고 또 *Jyotsnā*가 *haṭha*의 의미를 *hathayoga*로 풀이했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Hathapradīpikā*, *Hathayogapradīpikā*에 대한

41) I.1.4 또는 9송까지는 최초의 필사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2)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hathayogapradīpikāḥ hi dhatte svātmārāmaḥ*” 또는 “*hathayogapradīpikāḥ ca dhatte svātmārāmaḥ*”

도식적인 구별은 무의미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사본의 콜로폰과 카탈록 명칭 그리고 본문의 언급 등을 고려한다면 어쨌든 *Haṭhapradīpikā* 가 최초 필사자의 육성에 가깝고 또 그 이후의 필사자들에게도 익숙했던 명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콜로폰이 이 문헌을 *Haṭhapradīpikā* 로 표기했던 이유도 바로 이 계승에 의거했던 것으로 보인다.

## V. 맺음말 : 표준적 명칭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따르면, *Haṭhapradīpikā* 라는 제목이 저자 또는 최초 필사자의 육성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헌이 *Haṭhayogapradīpikā* 로 알려지게 된 정확한 계기와 과정에 대한 것은 논자의 능력을 넘어선 것이다. 아마도 하타요가 수행법이 널리 보급되고 또 *Haṭhayoga* 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 문헌의 명칭도 *Haṭhayogapradīpikā* 로 오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인도 철학에서 한 문헌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있다는 점에서<sup>43)</sup> 여기서는 *Haṭhayogapradīpikā* 가 표준적 명칭으로 적합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준적 명칭을 확정할 필요성은 특히 사본의 경우, 동일 내용일지라도 콜로폰에 따라 다른 문헌으로 분류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편잡대에 소장된 *Viniyuktamudrālakṣaṇa*와 *Mudrākaraṇa* 라는 사본의 경우, 동일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헌으로 분류되어 각각이 유일무이한 사

43) Bhojavṛtti = Rājamārtamḍavṛtti, Sāṃkhyatattvakaumudī = Tattvakaumudī, Brahmasūtra = Vedāntasūtra, Dakṣiṇāmūrtistotravṛttika = Mānasollāsa, Toṭakāṣṭaka = Śāṅkaradeśikāṣṭaka

본으로 오해될 수 있고 또 명칭의 문제로 두 사본에 접근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콜로폰이 없는 사본과 출판되지 않은 사본이 무수히 많다는 점에서 ‘표준적인 명칭’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Hp.와 같이 잘 알려진 문헌의 경우에도 콜로폰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어 *Hathapradīpikā*, *haṭṭapradīpikā* 등으로 흩어져 전체 사본에 접근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실제 사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본이 지닌 고유번호를 파악해야 하지만 그 고유번호는 학과별, 문헌별로 순서대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수집당시의 순서에 의해 부여된 것이므로 일련번호의 선후관계로 특정 사본을 추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 점에서 현대의 사본 연구자에게 필요한 것은 ‘동일 내용이지만 다양한 이름을 지닌 사본들’에 대한 하나의 표준적인 명칭을 확정하고 ‘한 개의 동일群’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여기서 *Hathayogapradīpikā*가 하나의 표준적 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콜로폰, 타 문헌의 인용, 운율에 따른 표현에 따르면 *Hathapradīpikā*가 원제의 흔적을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 문헌이 출판되었던 시점부터는 상황이 바뀌게 된다.

Hp.에 대한 초기 출판물 중 널리 알려졌고 현재까지도 출판되고 있는 것은 두 종류이다. 하나는 1915년에 알라하바드(Allahabad)에서 출판된 Pancham Sinh의 *Hathayogapradīpikā*(이하 Hp(Pc)로 약)이고 다른 하나는 1893년 Tookaram Tatya(ed.)와 Śrīnivāsa Iyāṅgar(tr.)가 함께 출판된 Bombay판본 및 이 판본에 대한 새로운 교정본(이하 Hp(Ad)로 약)이다.<sup>44)</sup>

44) Winternitz는 *Hathayogapradīpikā*가 Tookaram Tatya(ed.) 그리고 Śrīnivāsa Iyāṅgar(tr.)에 의해 1893년 Bombay에서 출판된 이래 인도 전역에서 수차례 출판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Winternitz(1922), p.557(n).

2000년에 마드라스에서 출판된 Hp(Ad) 서문에 따르면 위의 1893년 출판본은 봄베이

Hp(Ad)은 주로 Ad.에 소장된 필사본 No. PM1431(Catalogue No.134) *Hathayogapradīpikā with comm. -Jyotsnā*에 의거해서 편집 교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5)</sup> 이 필사본의 제1장 콜로폰은 *Hathapradīpikā*로 되어 있지만<sup>46)</sup> 나머지 장<sup>47)</sup>과 마지막 콜로폰이<sup>48)</sup> *Hathayogapradīpikā*로 되어 있다. 이것은 1893년, 1915년 1893년에 출판된 Hp(Ad)의 서명, *Hathayogapradīpikā*가 근거 없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1915년 출판된 Hp(Pc)의 경우 어떤 사본을 근거로 원문을 확정했는지 분명치 않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출판본(p.63)의 콜로폰엔 *Hathapradīpikā*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Hathayogapradīpikā*로 표기한 점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1915년에 이미 *Hathayogapradīpikā*라는 명칭이 일종의

---

Theosophical Publishing Fund로 발행된 것인데, 이 출판본은 1933년에 마드라스의 Ad.에서 ‘사본번호 Pm1431. Jyotsnā에 의거한 교정본으로 출판되었고’ 1948년, 1972년, 1975년, 2000년에도 출판되었다. 이와 관련된 약간의 내용은 Hp(Ad) 서문을 참조

이 출판본은 봄베이에서도 1962년과 1983, 1994년에 출판되었고 캐나다의 퀴벡에서도 1987년에 출판된 것으로 추정된다. 1893년 판본의 출판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Ad.의 카탈록 (*Descriptive Catalogue of Sanskrit Manuscripts*, vol.8), pp.26~7에 따르면, 출판사는 Nirnaya Sagar Press이고 역시 사본은 Pm 1431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93년에 *Hathayogapradīpikā*는 Hermann Walter에 의해 독어로 번역되어 Munchen에서 출판되었는데, 서명은 *Die Leuchte des Hathayoga*이다.

45) 이 사본은 신뢰할 수 있으며 특히 주석서 Jyotsnā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1972년에 출판된 Ad.의 카탈록(*Descriptive Catalogue of Sanskrit Manuscripts*, Vol.8. Sāmkhya, Yoga, Vaiśeṣika and Nyāya) pp.26~7에 따르면 이 사본은 Ad.의 재판본 그리고 1893년 봄베이의 Nirnaya Sagar Press 출판본의 주요 소스가 되었다.

46) 제1장의 콜로폰: “iti śrīhathayogapradīpikāvākyāyām brahmānandakṛtāyām Jyotsnābhīdhāyām samādhinirūpaṇam nāma caturthopadeśaḥ”

47) 제2장의 콜로폰: “iti śrīhathapradīpikāyām jyotsnābhīdhāyām brahmānandakṛtāyām prathamopadeśaḥ”

48) 제3장의 콜로폰: “iti śrīhathapradīpikāvākyāyām jyotsnābhīdhāyām brahmānandakṛtāyām dvitīyopadeśaḥ”

제4장의 콜로폰: “iti śrīhathapradīpikāvākyāyām brahmānandakṛtāyām jyotsnābhīdhāyām mudrākathanam nāma tṛtīyopadeśaḥ”

Unified Standard Title이거나 또는 널리 알려진 명칭이었다는 것'이다.<sup>49)</sup>

현재까지 Hp가 *Hathayogapradīpikā* 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아마도 위의 두 초기 출판물이 인도와 유럽 학자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부터일 것이다. *Hathayogapradīpikā* 의 두 출판본이 Winternitz를 비롯한 유럽의 문헌학자에게 전달되어 무비판적으로 *Hathayogapradīpikā* 가 하나의 표준적 명칭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sup>50)</sup>

1920~1930년대에 하타요가쁘라디빠까의 실천법이 널리 알려지고<sup>51)</sup> 1931년<sup>52)</sup> 그리고 1950년대부터<sup>53)</sup> *Hathayoga*라는 용어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 문헌의 명칭도 *Hathayogapradīpikā* 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 인도 학 관련 연구목록이나 요가 연구서 등의 기술에 따르면 *Hathayogapradīpikā* 는 사실상 표준적 명칭(Unified Standard Title)이다.<sup>54)</sup> 또한 최근까지 인터넷으로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는, Texts whose Authors can be dated authors

49) 덧붙이자면 Hp(Pc)는 1915년 이후에도 꾸준히 재발행되었으며 최근엔 Forgotten Books 시리즈로도 다시 출판되었다. 하지만 이 판본은 재판본을 스캔한 후 새롭게 가공한 것으로 무수한 오류로 가득하고 콜로폰의 데와나가리 원문 역시 초판과 다르게 “iti haṭha-yoga-pradīpikāvyañam samādhi-lakṣhaṇāṃ nāma caturthopadeśaḥ”로 되어 있으며 로마자로 병기해놓은 “iti haṭha-yoga-pradīpikāyaṃ samādhi-lakṣhaṇāṃ nāma caturthopadeśaḥ”도 오류이다.

50) Winternitz(1922)의 p.557(n)에 *Hathayogapradīpikā*라는 문헌이 언급된다.

51) Liberman(2007), p.109를 참조.

52) Heinrich Zimmer, “Lehren des Hathayoga, Lehrtexte”, Yoga 1, 1931, 45~62.

53) 예를 들면 Theos Bernard, Hatha Yoga. London 1950; Hubert Risch, Le Hatha Yoga. Dissertation medicale, Paris. 1950; C. Kerneiz, Hatha-Yoga. Munchen 1952; Sivananda, Hatha Yoga. Gelnhausen 1954-56; Usharbudh Arya (Swamil Veda Bharati), Philosophy of Hatha Yoga. Honesdale, Penn. 1985.

54) *Hathayogapradīpikā*로 언급하는 문헌이 대부분이지만 대표적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① Winternitz(1963), p.557.
- ② Eliade(1970), p.131, 211, 229, 230, pp.131~9 등
- ③ 平凡社(1992), p.551.
- ④ Brown(1935), p.248~9.
- ⑤ Renou(1979), p.325

listed Chronologically 15th century to the present. (<http://faculty.washington.edu/kpotter/xtxt4.htm>.)에서도 이 문헌의 명칭은 *Hathayogapradīpikā* 로 되어 있다.<sup>55)</sup>

콜로폰과 타 문헌의 인용 그리고 운율을 고려한 표현 등에 따르면 *Haṭhapradīpikā* 가 원제에 가깝지만 이 문헌이 출판된 이후 현재까지 *Hathayogapradīpikā* 가 사실상 표준적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Haṭhayogapradīpikā* 로 명명할지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55) 일본에서도 사호다(佐保田鶴治)박사의 번역 이후 이 문헌은 하타요가쁘라디삐까로 널리 알려졌으며 그 이후 야마모토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된 Rouis Renou의 사전(山本智教, 1982)도 학계에 *Hathayogapradīpikā* 라는 명칭을 알리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출판된 연구서나 연구목록(Mayeda, 1985; Hara 1985) 및 中村元(1996), pp.309~310에서도 이 문헌의 명칭은 *Hathayogapradīpikā* 로 되어 있다.



- Csmpl : *Catalogue of the Sanskrit Manuscripts in the Panjab University Library*, Vol.2. (1941) Lahore: University of the Panjab.
- Dcym(Kd) : Philosophico-Literary Research Department(Compiled by), *Descriptive Catalogue of Yoga Manuscripts(updated)*, Lonavla : The Kaivalyadhama S.M.Y.M. Samiti, 2005(1st: 1989)
- Hp : *Haṭhapradīpikā*
- Hp(Ad) : *The Haṭhayogapradīpikā of Svātmārāma with the Commentary Jyotsnā of Brahmānanda and English Translation*. Madras: The Adyar Library and Research Centre, The Theosophical Society 1975.(1st. edition 1972)
- Hp(Kd) : Digambaraji, Swami and Kokaje, Pt. Raghunatha Shastri (Ed. & Tr.), *Haṭhapradīpikā of Svātmārāma*. Lonavla: Kaivalyadhama, S.M.Y.M. Samiti, 1998. (2nd. editon)
- Hp(Pc) : Sinh, Pancham, *Hatha Yoga Pradīpika: Translated into English*. Allahabad: Sudhindra Nath Vasu, The Pāṇini Office, Bhuvaneśvarī Āśrama, 1915.
- Hp(Ly) : Dr. M. L. Gharote, Dr. Parimal Devnath(Eds.), *Haṭhapradīpikā (with 10 Chapters) of Svātmārāma with Yogaparakāśikā, A Commentary by Bālakṛṣṇa*. Lonavla: The Lonavla Yoga Institute, 2006.
- Hr : Dr. M. L. Ghotate, Dr. Parimal Devnath, Dr. Vijay Kant Jha(eds.), *Haṭharatnāvalī-A Treatise on Haṭhayoga of Śrīnivāsayogī*. Lonavla: The Lonavla Yoga Insitute, 2002.
- Jyotsnā : *The Haṭhayogapradīpikā of Svātmārāma with the Commentary Jyotsnā of Brahmānanda and English Translation*. Madras: The Adyar Library and Research Centre, The Theosophical Society, 1975.(1st. ed. 1893)

## 참 고 문 헌

- Benerji, Sures Chandra (1995) *Studies in Origin and Development of Yoga - From Vedic Times, in India and Abroad, with Texts and Translations of Pātañjala Yogasūtra and Haṭhāyogapradīpikā*, Calcutta: Punthi.
- Bouy, Christian(1994) *Les Nāthayogin et les Upaniṣads*, Collège de France Publications de l'Institut de Civilisation Indienne, Fascicule 62, Paris: Diffusion de Boccard.
- Hara, Minoru(1985) *Studies on Indian Philosophy and Literature in Japan, 1973~1983, Asian Studies in Japan, 1973~1983 Part II -21*. Tokyo: The Centre for East Asian Cultural Studies.
- Lieberman, Kenneth(2008) “The Reflexivity of the Authenticity of Haṭhāyoga”, Edited by Mark Singleton and Jean Byrne: *Yoga in the Modern World-Contemporary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
- Michaël, Tara(1974) *Haṭha-yoga-pradīpikā: un traité sanskrit de Haṭha-yoga*, Paris: Fayard.
- Michaël, Tara(1979) *Corps Subtil et Corps Causal: Les Six Cakra et le Kundalini Yoga*, Paris: Le Courrier du Livre.
- Mayeda, Sengagku(1985) *Indian Philosophy and Literature, Oriental Studies in Japan: Retrospect and Prospect 1963~1972*. Tokyo: The Centre for East Asian Cultural Studies.
- Mayeda, Sengagku and Junzo, Tanizawa(1985) “Studies on Indian Philosophy in Japan 1963~1987”, *Acta Asiatica* 57. Tokyo: The Toho Gakkai.
- Union. Brown, W. Norman; Shryock, Jon K; Speiser, E.S.(1935) *Union List of Printed Indic Texts and Translations in American Libraries* (American Oriental Series Vol.7).
- Winternitz(1922) *History of Indian Literature*, Delhi: Motilal Banarsidass.
- 中村元(1996) 『ヨーガとサーンキヤの思想』. 東京: 春秋社.
- 山本智教(譯)(1982) 『インド學大事典』 第2卷, 東京: 金花舎. [Rouis Renou and Jean Filliozat. L'inde Calssique manuel Des Études Indiennes, Vol.2].
- 平凡社(1992) 『南アジアを知る事典』. 東京: 平凡社.

- 박영길 (2008) 「『하타요가쁘라디삐까』(Haṭhayogapradīpikā)에서 뿌라나야마 (Prāṇ-āyāma)의 의미와 실천법」, 『인도철학』 25집. 서울: 인도철학회.
- 박영길 (2009a) 「『하타요가쁘라디삐까』(Haṭhayogapradīpikā) 제3장 <무드라>의 국역과 주해(1)」, 『요가학연구』 창간호, 한국요가학회. 2009. 4월.
- 박영길·차상엽 (2009b) 「『하타(요가)쁘라디삐까Haṭha(yoga)pradīpikā』 사본의 현황과 목록」, 『요가학연구』 2호, 한국요가학회. 2009. 10월.

## Reflections on the Issues Concerning the term *Haṭha(yoga)pradīpikā*

Park, Young Gil (Woolner Project Researcher, Geumgang University)

There are over 318 extant manuscripts of the *Haṭhayogapradīpikā*. This is the highest number of manuscripts on a text related to Haṭhayoga. The fact that 318 manuscripts are extant indicates the considerable influence and authority of this text within the domain of Haṭhayoga.

The *Haṭhayogapradīpikā* has been copied/rendered -besides Devanaragi- in Bengali, Grantha, Śarada, Nandinagari, Newari, Telugu, and in Malayalam, which is a further indication of its popularity within yoga circles.

This text can be distinguished from other Haṭhayoga texts because it has been the focus of many excellent commentaries, including the *Jyotsnā* by Brahmānanda.

In recent years, an academic debate has been ongoing concerning the exact title of this text. Within academia and the public at large, this text has hitherto been referred to as *Haṭhayogapradīpikā*, but its exact title is *Haṭhapradīpikā*, not *Haṭhayogapradīpikā*.

This paper asserts that the name *Haṭhapradīpikā* closely corresponds to the intention of its author (or perhaps to that of its very first scribe), for the following reasons:

- ① The very first extant copy dating from the 15th century records

the text's title as *Haṭhapradīpikā*, and the appellation *Haṭhayogapradīpikā* has been used -from the 17th century onwards- concomitantly with that of *Haṭhapradīpikā*.

- ② The majority of extant manuscripts have *Haṭhapradīpikā* in colophons, and 80 manuscripts record as *Haṭhayogapradīpikā*.
- ③ The 17th century text *Haṭharatnāvalī* quotes the *Haṭha(yoga)pradīpikā* and refers to the *Haṭhapradīpikā* as its source.
- ④ The compound *Haṭhayoga* almost never occurs in the *Haṭha(yoga)pradīpikā*. Instead, it is referred to by the term *Haṭha*.

Even in passages where the term *Haṭhayoga* would be more accurate, the term *Haṭha* is used. This is in order to preserve the sixteen syllables.

For the same reasons:

- ⑤ The śloka Hp.1.1.3 clearly refers to the title of this text as *Haṭhapradīpikā*.
- ⑥ In his commentary on the śloka Hp.1.1.3, Brahmānanda interprets *Haṭhapradīpikā* as *Tatpuruṣa*, in the sixth case, which implies that he knew this text as having the title of *Haṭhapradīpikā*.

⊙ Key word

*Haṭhayogapradīpikā*, *Haṭhapradīpikā*, Manuscripts, Unified Standard Title.

2009년 11월 25일 투고

2009년 12월 8일 심사완료